

2009년도 구비문학 분야 연구동향

손태도*

1. 머리말
2. 분야별 연구동향
3. 남는말

1. 머리말

2009년도에도 구비문학 연구계에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나 그와 유사한 학술단체들의 지원을 받는 조사 및 연구 사업들이 이뤄졌고, 국제학술대회만 지원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방침에 따라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노력들도 보였다.

매년 비슷한 요청들이 있지만, 2009년에는 한국민속예술축제 50주년 기념행사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한국민속학회가 했고, 2009년부터 시행되는 초·중·고의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 한국민요학회가 이러한 교육과정 개편과 관계된 민요교육에 대한 문제를 학술대회로 다루었다. 강릉단오제, 전남 영광 범성포단오제처럼 오늘날 전승되는 몇 개 안 되는 고을굿의 하나인 경북 자인단오제에 대한 학술대회도 한국공연문화학회가 맡아하여 그동안 문혀 있던 자인단오제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

한편 여러 학회들의 자체 기획 학술대회들은 예전에 비해 별 성과들이 없었다. 한국구비문학회에서는 ‘구비문학과 원형’, ‘구비문학과 파격적 상상력’과 같은 해묵거나 안이한 주제들을 다루었고, 한국민속학회의 ‘한국 가면극/탈춤 연구의 쟁점’은 실패한 학술대회였으며, 판소리학회의 ‘판소리와 현대문학’도 거의 생산이 없는 학술행사가 되고 말았다. 한국무속학회의 ‘지역무속에 대한 종합고찰6-충청무속의 이해’도 거의 성과가 없었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연희과 객원교수

그러나 항상 그렇듯 개인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은 개인들에 따라 눈부시기도 했고 그렇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한 사정들은 분야별 연구 동향의 실제 서술에서 소개될 것이다.

분야별 연구 성과들에 있어서는 근래에 와서 더욱 그렇듯 ‘무가’쪽이 가장 주목할 만하였다.

분야별 연구 동향에 있어 ‘해외의 구비문학’은 특별한 경향을 파악할 수 없어 별도로 다루지 않고 부록에서의 목록 제시만으로 이뤄졌다. 이해가 있었으면 한다.

2. 분야별 연구동향

2.1. 구비문학 일반론

어떤 분야든 일반론이 왕성하게 전개될 때 그 분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1971)이 나온 이래 이를 대신할 만한 구비문학 일반론이 그동안 나오지 않은 것은 그 이후의 후학들이 부끄러워할 일이다. 그동안 몇 권의 ‘구비문학개론’들이 나오기는 했으나, 구비문학에 대한 시각이나 비전이 약하고, 전체적인 체계성도 없이 다만 전공 분야들을 여러 명들이 나누어 각기의 방식대로 쓴 것들을 모아둔 형태였기에, 구비문학 일반론 영역의 진전은 사실상 없었다. 그나마 근래에는 그러한 책들마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1971)에 공저자로 참가했고,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구비문학개론』에도 참가했던 최래옥이 단독으로 『한국구비문학론』을 내었다. 『한국구비문학론』이라고 하였지만 사실상 ‘구비문학개론’이다. 총론,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민속극, 속담, 수수께끼, 민간속신어 등 9개 영역과 현지조사법, 부록인 작품자료 등을 갖추었다. 장덕순 외 『구비문학개설』(1971)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다만 ‘민간속신어’란 새로운 영역이 하나 더 있을 뿐이다. ‘구비문학개론’이라 하지 않고 『한국구비문학론』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저자는 “구비문학 전반과 해석 방법론”을

언급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구비문학계의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여 일반적으로 쓰지 않고 저자 나름의 서술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요즘 부각되고 있고 구비문학계에서도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구비문학과 현대의 매스미디어 문학의 관계를 다루지 않은 것도 큰 허점이다. 한창 연구열이 왕성할 때 하지 않고 정년 퇴임 한참 뒤 이 책을 쓰게 되어 그런 것이 아닌가 한다.

구비문학 일반론과 상당 부분 관계되는 것으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에 대한 논의들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설화를 제외한 민요, 판소리, 민속극, 무가 등이 모두 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또한 2005년에는 대전시 무형문화재로 ‘소설 낭독자’가 지정되었기에¹⁾ 설화 연구자들도 이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소설 낭독자는 전문적 이야기꾼 곧 ‘애기 장수’와 가까이 있고, 소설 낭독자 자신들도 소설 낭독 중간에 ‘고담’ 곧 이야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 한국민속학회, 판소리학회, 한국무속학회 등등 민속 관련 학회들 대부분이 연합해 한국민속학술단체연합회를 만들어 2008년도에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이란 주제로 학술대회를 하고, 그때 발표된 글들을 모아 같은 제목의 책을 ‘민속학자대회 학술총서1’로 내었다. 여기서 임재해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에서 유형문화재도 무형문화재 정신에 입각해 관리할 때 문화재를 더 잘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며 문화재 보존에 있어 무형문화재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²⁾ 손태도는 한국 무형문화재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에서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무형문화재들이 대부분 보존되었고, 오늘날 이뤄지는 세계무형문화유산 제도도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에서 시작된 것 등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정책들이 그 업적들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원형 확보의 작업을 하지 않아 사실상 무형문화재가 없고, 북한지역의 무속이나 세습무들의 무속 같은 중요한 것들을 지키기 못해 사실상 중요한 무형문화재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1) 충남 계룡시에 사는 정규현(1936년생)이 지정되었다.

2) 이 당시 남대문 소설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려대 대학원에 문화재학과가 생겨서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자체에 대한 석사논문들을 넘어 이제는 박사논문도 나오게 되었다. 宋濬은 박사논문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에서 무형문화재에서 ‘원형성’보다 일정한 가변성이 허용되는 ‘진형성’이 추구되어야 하고, 정부는 가시효과와 같은 부가가치보다 장기적인 고유가치를 중시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문화정책을 펼치는 프랑스의 문화정책이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하며 문화정책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개방적이고 투명한 정책 운용을 해야 된다고 했다.

2009년 9월 12~13일은 한국민속예술축제(종래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5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 대회 때만은 기념대회로 종래처럼 경연대회를 하지 않고, 그동안 이 행사를 통해 발굴된 주요 종목들을 공연하는 축제적 행사로 열렸다. 그리고 이러한 5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의의와 문제점을 돌아보기 위해 ‘한국민속예술축제 회고와 전망’이란 학술대회를 한국민속학회에서 담당하게 했다. 이 당시 발표된 논문들이 『한국민속학』 제50집에 실려 있다. 그런데 당시 발표에서 가장 주요하면서도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기조발표인 이보형의 ‘한국민속예술축제 회고와 전망’이란 글이 이 학회지에 실리지 않은 것이 눈에 띈다. 이보형의 글은 당시 발표자료집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

오늘날 전승되는 무형문화재들과 매년 열리는 한국민속예술축제 공연 종목들에는 구비문학에 해당하는 것이 많기에 구비문학 연구자들도 이러한 무형문화재와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관련된 행사와 연구들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2. 설화

설화 영역에서는 우선 연로한 연구자분들의 단행본 발간들이 눈에 띈다.

강재철은 『한국 설화문학의 탐구 -한국 설화의 전통적 접근』에서 그동안 쓴 14편의 논문들을 ‘설화의 개념과 용어’, ‘설화의 채록과 수집’, ‘설화의 형식과 내용’, ‘설화의 전승과 전파’ 등 ‘설화학’의 열개에 맞추어 낸다고

했다. 2008년에 정년퇴임한 조희웅은 『이야기문학 가을같이』(2008), 『이야기문학 실타래』(2008)을 이어 『이야기문학 징검돌』을 내었다. 이 책에는 기존에 발표한 글들 이외에도 외국의 설화학자들인 톰슨, 올릭, 테일러, 던데스, 클락혼, 라글란 등의 글들이 대부분 새롭게 번역돼 170여 페이지 분량으로 실려 있다. 신경득은 정년을 앞두고 『서사 문학 연구』를 내었다. 여기에는 자신이 꼭 하고 싶은 주장들이 삼위태백 논고, 산신으로 좌정한 응녀, 「단골로 본 주몽신화」, 각시바치로 본 온달전 등의 논문들로 실려 있다. 평소 학회 같은 데서 발표하지 않고 정년을 앞두고 갑자기 집중해서 쓴 글들이어서, 그 중요성은 알겠지만, 그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앞서 최래욱도 그렇고, 조희웅, 신경득 등의 원로들이 정년이 되어서야 겨우 시간을 내서 저술 작업을 하는 현재의 대학 사정을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한국구비문학회에서 2009년 두 번의 학술대회에서 기획 주제를 ‘구비문학과 원형’, ‘구비문학과 파격적 상상력’ 등 설화와 관계되는 주제들을 잡았다.

‘구비문학과 원형’은 새로운 주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정재는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에서 우리나라 인신공희 설화는 물론 외국의 사례들까지 거론하며 문화이론적 차원에서 인신공희의 의미를 깊이 있게 논했다. 이수자도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에서 부친을 살해하는 외국의 경우와 반대로 오히려 부친을 찾는 것이 많은 우리나라 신화, 서사무가, 민담 등의 사례를 들며, 그 의미와 의의를 논했다. 신동훈도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에서 우리나라의 ‘집 나가는 딸’ 유형 이야기를 바이칼호 주변의 설화인 <바이칼과 앙가라(부녀 관계)>와 관계해 흥미롭게 논했다.

‘구비문학과 파격적 상상력’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주목할 만한 논문들이 없었다. 천혜숙의 부자 이야기의 주제와 민중적 상상력이 나름대로 기획 주제에 충실했다. 파격적인 상상 속에 부자가 되는 것은 가난했던 일반 평민들의 부에 대한 강렬한 열망 때문이었던 것이다.

그 외의 설화 연구에는 『한국구비문학대계』(전82권, 1980~1987)의 조사 자료에 주로 기반해 ‘산재하는 각편들 중에서 특정 유형의 설화를 분류해

연구하는 방식'이 여전히 이어졌다.

김현선의 『설화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은 <손 없는 색시> 유형을 다룬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 유형을 다루면서도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된 것은 '<손 없는 색시> 유형' 연구 외에도 비교연구(러시아, 일본, 프랑스), 유사유형 연구, 인접유형 연구 등으로 그 연구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노영근의 <救龍談>의 사적 전개와 변이』도 그렇다. 용과 늙은 여우의 싸움에 거타지가 용을 도와 활로 늙은 여우를 죽이고 용의 딸과 결혼하는 『삼국유사』의 <거타지 설화>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이른바 '救龍談'들을 가능한 대로 모두 소개하고, 유럽, 중국, 일본의 경우들도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제는 설화 연구에서 국내 설화의 하위 유형 분류에만 머물지 않고 외국의 경우까지도 드는 것이 관례가 된 듯하다.

『한국구비문학대계』의 자료들에 입각해 '거짓말 세 마디로 장가 든 사람' 민담유형을 다루면서도 심우장은 거짓말 딜레마와 이야기의 역설-설화 <거짓말 세 마디로 장가 든 사람>의 이해』에서 일반적 이야기의 한 주요한 동력을 제시했다. 이야기는 참인 것으로만 해도 재미가 없고 거짓말로만 해도 흥미가 없기에, 참인 것처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참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그러한 이야기 진행의 속성이 이 이야기 특히 이 이야기의 세 번째 거짓말인 거짓말이면서도 참인 것을 강제하는 것에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심우장에게 이 '거짓말 세 마디로 장가 든 사람' 유형 이야기가 이야기의 한 일반적 속성을 돌아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곧 메타 설화로 활용된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로 설화에 대한 일반 이론에까지 나아가는 논문이었다.

2.3. 민요

2009년 한국민요학회의 학술대회의 기획 주제들은 '한국의 민요교육, 진단과 전망', '사이버 국제학술대회', '동아시아 민중들의 민요와 삶, 그 연구의 쟁점' 등이었다. 2009년 3월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기에 이에 따라 한 번은 초·중·고 민요교육에 주제를 할애하고, 두 번은 국제학술대회를 한 것이다.

초·중·고 민요교육에 대한 논문들은 성기련의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에 따른 민요 관련 지도내용 고찰」처럼 국악교육 관련 전공자들의 음악 논
문들이 대부분이다.

두 번의 국제 학술대회를 했는데, 사실상 외국의 민요나 민요 연구 사정이
국내의 민요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도 이렇게 활발
하게 국제 학술대회를 한 것은 사실상 오늘날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외국 학
자들 특히 중국, 일본 학자들과의 교류가 전반적으로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민중들의 민요와 삶, 그 연구의 쟁점’에서는 ‘연구의 쟁점’이
라고 해서 그동안 민요 연구들을 점검한 면도 있었다. 이에 강등학은 한국
의 민요연구 역사와 문제의식의 추이」를 썼다. 여기에는 민요 수집 초기의
사실 위주 조사에서 근래의 영상 위주 조사까지의 사정이 잘 소개되어 있
고, 민요 연구에 있어서도 초기의 사실 연구나 악곡 연구를 넘어 그 이후의
현장론적, 문화사회학적, 생태학적 등 보다 전향적으로 발전되어 온 연구
방식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구비문학 중에서 민요 연구가
방법론에 있어 가장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늘날 현장의 민
요들로 살아 있는 것은 별로 없고 반면에 민요 연구의 방법은 고도로 발달
되어 있기에, 민요 연구는 앞으로 한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
겠다는 생각도 든다. 물론 오늘날에도 민요 연구를 사실 위주로만 연구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지만 그것은 분명 지양되어야 할 것 같다. 최은숙은
한국 근대 민요에 관한 연구 경향과 쟁점」을 다뤘다. 근대 무렵의 잡가와
신민요에 대한 이해 문제, 근대 무렵 신문, 잡지나 ‘민요집’ 형태에 실린 민
요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아직 서로 다른 시각
들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지역 아리랑의 성립에 대한 논쟁도 한바탕 이뤄졌다. 이보형이
일찍이 아리랑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1997)에서 1864
년 경복궁을 중건할 때 강원도에서 온 일꾼들이 부른 강원도 긴아리랑에서
서울의 긴아리랑이 나왔고, 서울의 긴아리랑에서 또한 서울의 자진아리랑
이 나왔다고 했다. 이에 이용식이 강원도 <아라리>의 음악적 특징과 원
형적 특징」에서 음악 선율로 보아 서울의 긴아리랑이 강원도 긴아리랑에서

나온 것은 맞지만, 서울의 자진아리랑은 강원도 자진아리랑에서 바로 나왔다고 했다. 이에 이보형이 다시 아리랑소리의 생성문화 유형과 변동」으로 자신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고수했다.

민요에 대한 자료는 1930년 영남의 30개 군을 현장 조사해 358곡을 채집한 李在郁의 민요집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1930년 무렵 당시 경성제국대 조선어문학부 졸업 논문으로 김태준이 『조선소설사』, 김재철이 『조선연극사』를 썼듯, 이재욱은 이 자료들로 졸업 논문 『영남 민요 연구』를 썼던 것이다. 이재욱의 이 민요집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자료총서 22 영남전래민요집』(2008)으로 발간되었고, 이 민요집으로 박사논문(영남대 국악과)을 쓴 배경숙은 자신의 논문과 이 민요집 원본을 영인한 것을 합쳐 『이재욱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를 발간했다.

1929년 경성제국대학 조선문학연구실에서 각 보통학교 직원들에게 의뢰해 수집하여 당시 조선총독부 기관지였던 『조선』에 1930년 5월호부터 10월호까지 실었던 민요 자료들도 이복규의 ‘자료소개: 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지의 김지연 채록 민요들’로 소개되었다.

일본인 橋本彰美가 남긴 ‘韓語類聚’(42장 분량의 필사본. 1920년 필사)에 실린 우리나라 민요들도 허경진·박은애의 한어류취(韓語類聚)에 채록된 19세기 말 민요에 대하여」로 소개되었다.

정동화가 1973~1992년 20년간 방학을 이용해 인천교대 학생들을 동원하여 수집한 경기도 17개 시·군과 인천 영종도의 민요도 『경기민요』로 발간되었다.

2.4. 판소리

판소리학회는 과거 상반기인 5월에는 전주에서 하반기인 10월에는 서울에서 학술대회를 열었으나, 판소리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학술대회 유치들로 10월의 서울에서의 학술대회대신 한때는 남원에서, 한때는 구례에서, 근래에는 고창에서 하반기 학술대회들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지방에서의 요청들로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그 지방과 관계되는 주제를 잡을 수밖에 없다. 2008년 10월 고창에서의 학술대회 주제는 ‘동리 신재효의 재조명’이었다.

신재효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더 연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란 선입감을 가질 수 있었으나,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좋은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권순희의 「신재효 단가의 재조명」은 신재효가 판소리 5가와 함께 남긴 허두가 13편도 그가 판소리를 개작한 것처럼 대부분 전래의 단가를 개작한 것임을 밝혔다. 송미경은 「‘신오위장본집’ 소재 <토끼타령>에 드러난 변모양상과 의의」에서 그동안 주목하지 않은 ‘동리선생소작 옥천거사장단’이라 되어 있는 <토끼타령>이 신재효 토별가를 판소리화해서 부른 창본 계통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엄국천의 「북한의 신재효 연구 현황」도 새로운 연구였다. 북한에서는 ‘신재효의 남창·여창·동창 <춘향가> - 창극 - 가극’의 계통을 갖고 있기에 신재효가 중시되는 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는 없는 여창 <춘향가>가 북한에는 있을 수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2009년 5월의 기획 주제는 학회가 결정했는데 ‘판소리와 현대문학’이었다.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청의 이문구 소설의 전통 양식 수용 양상 정도가 일정한 성과였다. 이문구는 사건이나 등장인물을 눈앞에 보이듯 그려내는데 이에 판소리의 ‘부분의 독자성’, ‘장면의 극대화’, ‘구전공식구들의 동원’ 등의 시각들이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반 연구에 있어서는 창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배인교의 「1950~60년대 북한 전통 음악인들의 활동 양상 검토 - 창극 관련 음악인을 중심으로」에서 월북한 박동실, 조상선, 공기남 등의 이북에서의 창극 활동을 소개한 것은 이를 더욱 확대했다.

새로이 찾아낸 사실들을 중심으로 논의한 송미경의 「여규형본(呂圭亨本) <춘향전> 각본의 형성과 독서물로의 수용 전환」, 이진오의 「정노식의 행적과 ‘조선창극사’의 저술 경위 검토」가 있었다. 배연형은 판소리 노정기와 燕行使 燕行日記 -19세기 판소리 公演市場의 一面」에서 경기이북의 의주, 선천 등 연행사 경로지도 판소리인들의 주요 공연장임을 밝혔다.

김혜정의 『판소리음악론』은 근래에는 음악으로서의 판소리 연구자들도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한 모습이다.

물론 김진영 외 편의 『춘향전 이본 전집1~17』(1997~2004) 등 판소리계 작품들의 이본집들이 나온 이래, 이 자료들에 근거해 일정한 서사적 내용의 변이를 분석 제시하는 단순한 시각의 논문들도 판소리 분야에서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2.5. 민속극

가면극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한국민속학회에서 ‘한국 가면극/ 탈춤 연구의 쟁점’이라는 현재의 쟁점 주제를 다루어 전경옥의 한국 가면극의 계통을 보는 시각 재론,과 임재해의 탈춤 기원론의 쟁점과 상고시대 탈춤문화의 뿌리,란 두 사람의 논문 발표가 있었고, 사진실 외 4명의 토론자들이 이 발표들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들을 벌였다.

전경옥의 주장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탈놀이에 외래 계통의 산대희적 요소, 儼禮的 요소가 있는 것은 옳았으나, 조선 후기의 본산대 탈놀이패를 성균관의 노비인 ‘泮人’으로 제시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이러한 전경옥의 이른바 ‘반인설’에 대해서는 필자는 앞서 본산대 탈놀이패에 대한 시각, (2002)이란 반대 논문을 쓴 적도 있었다. 임재해의 주장에 있어서는 이미 고조선 시대의 유물에 가면의 요소들이 있기에 우리나라에도 고유의 탈놀이가 있었다는 것은 정당한 주장이었으나, 그러한 탈놀이가 현재의 탈놀이들에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었다. 이렇게 두 사람들의 주장 모두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그날 학술대회는 격화된 면이 있어 그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리고 그 당시 논문들과 토론문들이 논란 끝에 이후 학회지에 실리기는 했으나 그 학문적 의의도 미미하다.

구비문학의 다른 영역들에 비해 연구자들의 수가 적은 이 민속극 분야에 앞으로 이 분야의 분명한 연구자가 되는 것을 말해 주는 두 편의 박사논문이 나왔다.

윤아영은 박사논문 「고려말·조선초 宮庭儺禮의 변천양상과 공연사적 의의」에서 궁정나례를 고려시대의 「爭技部, 驅儺部, 儺戲部」, 조선시대의 「觀儺-觀火-驅儺-觀處容」으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문헌 기록 외에도 관련 사항들을 더 고려해 사실들을 구성해 내기보다 단편적인 문헌 기록들 자체에만 근거해 그 사실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었다. 이를테면, 고려시대 산대를 만들고 燈을 다는 「設火山臺」와 조선시대 산대를 만들고 불꽃놀이를 하는 「火山臺」를 비슷한 용어로 인해 동일시한다든지, 신라시대부터 있었을 처용무를 조선시대 『악학궤범』의 관나 부분에 처용무가 있어 이 처용무를 조선시대의 나례 의식으로만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분명 문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나례 집단, 조선시대 나례 때의 산대 설치 등 이미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조선 초기의 주요한 나례 상황들도 전혀 다루지 않은 것도 논의의 제한성을 보여 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나례가 중국에서 들어온 것인 만큼 나례를 중국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모두 살펴 우리나라 나례의 특수한 전개를 밝히려고 한 것은 상당히 의욕적이었다. 또 음악 전공자여서 그 동안 우리나라의 궁정 나례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蓮花臺」, 「鶴蓮花臺處容舞合設」 등에 대한 궁정 朶才舞들 등에 대한 소개와 그 역사적 전개 등을 다룬 것은 이 분야의 새로운 연구 성과였다.

하을란은 박사논문 「한국 동물가장가면희의 역사와 연희양상」에서 한·중·일의 동물가장가면희들을 모두 소개하는 의욕을 보였으나 간략한 소개들에 그쳐 이러한 소개들을 통해 우리나라 동물가장가면희들의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또 나례, 산악백희, 궁중정재, 무굿, 가면극, 놀이 등 그 계통들이 다른 공연 종목들의 동물가면희들을 모두 다루면서도 이들간의 관계들에 대한 논의들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연구 성과들이 기존의 논의 내용들을 소개하는 정도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소논문인 허용호의 「人形演行史 기술의 새로운 모색」은 고구려 시대 주몽이나 유화부인의 木像, 기우제 때의 토룡, 입춘날의 木牛 등 인형극의 인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까지 끌어들이 이들을 오늘날 서역 계통이나 중국 계통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진 현재의 인형극에 중요한 것처럼 논의한 것은 무리였다.

박진태의 「한국 민속탈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적 의미」는 단순한 논의이고, 역시 그의 「한국 무연탈놀이의 연극미학적 특성」도 무연극인 관노가면극, 예천청단놀음 등은 다루지 않고 오히려 그 외의 말놀이 있는 가면극들의 유언 부분과 무연 부분들을 대조시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도 역시 단순한 연구 방식에 의해 이뤄졌다.

이렇듯 민속극 부분은 근래에 상당 부분 그 연구가 침체되어 있다. 다만 김경나의 「몽골 후래 참의 연희양상과 한국 가면극의 관련성」(고려대 석사논문)처럼 외국 학생들이 고려대 대학원에 많이 와서 고려대 전경욱 교수의 지도로 이뤄지는 한·중·일이나 몽고, 티벳 등과의 우리나라 전통 민속극들에 대한 비교 연구에 그나마 일정한 기대를 걸고 있다.

2.6. 무가

구비문학에서 지금도 가장 왕성하게 조사·연구가 이뤄지는 곳이 무가 영역이 아닌가 한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무가 자료들이 소개되고 있다. 김현선은 『인천 영종도 쑥개 채수굿 무가집』을 발간했다. 2004년 인천 영종도 송산리 쑥개마을에서 김황룡, 김매물 등 황해도 만신들이 개인집에서 한 채수굿 자료다.³⁾ 박경신은 『한국의 별신굿 무가 1~12권』(1999)⁴⁾을 낸 이후 10년만에 『한국의 오구굿 무가 1~10권』을 내었다. 모두가 동해안 무가들이다. 나경수 외 7인은 『호남의 광머리씻김굿』을 내었다. 무가 외 음악, 무용, 巫服, 巫具 등 여러 전공자들의 공동 조사·연구 결과물이다.⁵⁾ 홍태환과 윤동환은 그동안 『한국의 무가 1~11권』을 2004~2007년 동안 각기 내어 왔는데, 이번에는 홍태환이

3) 김현선은 근래에 과거에 조사한 것들을 채록해 『동해안 화랭이 김석출』(2006), 『서울지역 안안뫼굿』(2006), 『황해도 무당굿놀이 연구』(2007), 『서울 진진오기굿 무가 자료집』(2007), 『1988년 강릉단오제 무가집』(2008)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자료집들을 발간해 오고 있다.

4) 『동해안 별신굿 무가 1~5권』(1993)을 확대한 것이다.

5)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호남지역 무속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의 결과로 그 동안 『호남의 몸주천도굿』(2006), 『호남의 망자환갑굿』(2007), 『호남의 천지굿』(2008), 『호남의 내림굿』(2008), 『호남의 초분이장굿』(2008) 등이 발간되었다.

노들제 이순자의 <바리공주>를 『한국무속학』 제18집에 실었다. 이영금은 전북 완주군의 세습무 가계 출신 최병호의 필사본 무가 <봉장춘(奉齋椿) 무가>를 『한국무속학』 제19집에 소개했다. 이 무가는 사냥도 하는 巫家 부부가 사슴을 살려주고, 나중에 큰도적의 아들들이 죽은 큰도적을 위해 바다의 한 섬에서 하는 천도굿을 하러 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무녀들로 변신해 온 이 사슴과 사슴의 자식들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된다는 내용의 서사무가다. 전북 지역의 서사무가에는 그동안 칠성풀이, 장자풀이, 제석풀이, 오구세왕풀이(바리데기) 등 4편만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서사무가 1편이 더 소개된 것이다. 이 <봉장춘 무가>는 무당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해 하는 굿인 신굿에서만 구송된 것이기에, 서울의 말명거리, 동해안의 계면굿처럼 무당들이 무당의 조상이나 선배들을 위한 굿거리 계통에서 불려진 무가가 아닌가 한다.

무가 외에 독경에 관한 책들도 근래에 발간되었다. 구중회의 『경책 문화와 역사』가 그것이다.⁶⁾

무가 연구에는 신연우가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제석본풀이> 서사구조의 역사성과 문학성」 등으로 활발한 연구를 보였다. 전자는 <초공본풀이>(제주도 육지의 <제석본풀이>에 해당)의 여주인공의 입사담과 같은 이미 일반화된 주장이지만, <라퐁젤>, <다나에> 등 외국 서사물들과도 비교하고, 프레이저, 반 개념 등의 외국 학자들의 입사식 이론들도 소개하며 나름대로 새로운 논의들을 하려는 노력들을 보였다. 후자는 『巫堂來歷』(1885)이란 문헌의 ‘제석거리’에 있는 “제석거리; 제석은 곧 단군 성조이니 삼신제석이라 부른다 (...) 고구려 산상왕이 아들이 없어서 삼신에게 기도하고 나서 꿈을 보고 귀한 아들을 낳았다. 그 뒤에 아들을 낳기 위한 발원이 이로써 풍속을 이루었다.”란 언급과 관련 고구려 산상왕의 역사적 기록과 현재 전승되는 제석본풀이를 관계시킨 것이다. 『삼국사기』 고구려 산상왕 205년의 기사를 보면, 아들이 없었던 산상왕이 산천에 기도를 드린 뒤 주통촌의 한 여인을 만나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 나온다. 이 역사적 사실이 남성위주의 서사물이 된 것이 주몽신화이고, 여성위주의 구비시 서사물이 된 것이 서사무가 제석본풀이란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그 사실

6) 구중회는 앞서 『충청도 설위 설정』(2002), 『옥추경 연구』(2006)를 내었다.

여부를 떠나 어쨌든 제석본풀이에 대한 새로운 한 역사적 접근을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전주희는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가 식구들, 시댁 식구들 등 주변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善神이 기보다 惡神에 가까운 제주도의 지장신인 지장아기씨 서사무가의 특수성을 소개하고, 이러한 지장본풀이가 죽음과 관계되는 무속 의례들에 활용되는 사례들을 논했다. 편성철은 『씻김굿에서 희설의 의미』에서 전라도 씻김굿에 있는 ‘희설’은 불교적인 것으로 보고 ‘불교 경전 - 불교 가사 - 희설’의 도식을 제시했다. 부분적 논의들에 다소 문제가 있는 곳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전라도의 씻김굿의 ‘씻김’ 자체가 불교의 망자 천도제인 靈山齋의 灌浴에서 나온 것이기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실일 것이다.

강진옥은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를 통해 종래 무가 자체만을 중시하던 연구 방식에 대해 무가 연구는 무속 의례도 살펴야 된다는 시각을 제시하고 또 무속 의례를 넘어 굿을 부탁한 제가집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로 전국의 굿들에 대한 실제적 조사 경험들을 바탕으로 굿을 하는 굿청은 신이 내려오는 신성 공간이 되고, 제가집 사람들은 그러한 신들과의 소통 속에 우주적 차원에서 자신을 보게 되며 그 결과 보다 근원적 자신을 만나게 되어 종래의 일상적 삶을 보다 의미 있게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무속 의례에서의 이러한 신성한 공간에 대한 논의의 맥락에서 무속 신화인 서사무가의 공간 이동을 통한 서사적 의미의 획득을 논의한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을 거론한 것이 아닌가 한다. 굿의 현장은 실제 공간이고, 서사무가 내용에서의 공간 이동은 서사적 전개와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무가 연구자가 무속 의례 및 굿을 부탁해 하는 제가집 사람들의 경우까지도 고려해 일정한 논의들까지 하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관련 한국무속학회에서는 2006년 ‘지역무속에 대한 종합고찰1-서울’이라는 기획 주제를 시작한 이래 이번에는 『한국무속학』 제18집에 ‘지역무속에 대한 종합고찰6-충청무속의 이해’를 실었다. 충청도에는 오늘날 무속과 관련되는 것으로 독경만 제대로 남아 있지만, 과거에는 은산별신제의

주무였던 이어린년이를 비롯한 세습무 계통의 무속도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무속학회에서는 오늘날 전승되는 충청도 독경을 마치 충청도 무속의 전부인 양 다루기보다 오히려 원래의 이러한 세습무들의 곳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번 기획 주제도 이러한 전통적인 세습무들의 곳을 충청도 곳으로 다루지 못하고 사실상 곳이라고 할 수 없는 독경을 충청도 곳인 양 다루고 말았다. 유감스런 일이다.

2009년 6월에는 한국공연문화학회가 ‘자인단오제의 과거·현재·미래’란 제목으로 경북 자인단오제에 대한 기획 학술대회를 했다. 자인단오제보존회에서 요청한 학술대회였는데, 이 학술대회를 통해 비록 그동안 큰곳의 단절, 女圓舞⁷⁾의 왜곡, 자인팔광대의 미정립 등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나 자인단오제도 강릉단오제에 못지않은 전통사회의 고을곳으로 곳도 있고, 탈놀이도 있으며, 이 지역에만 전승되는 신라이래의 대형 화관무인 여원무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학술적 조사·연구를 통해 점차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당시의 발표문들 중 일부가 『공연문화연구』 제19집에 실려 있다.

2000년 「황해도 진오구곳 연구」로 석사논문을 쓴 김덕목이 박사논문 「황해도곳의 무속지적 연구」를 내었다. 그에게 있어 무가 부분은 무속 의례 중 ‘언어 부분’과 같은 한 부분으로만 취급된 것은 물론이다. 권선경은 서울 지역 아끼씨당의 성격과 기능, 서울곳에 나타난 군웅의 의미」 등을 발표했다. 권선경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떠나 어쨌든 우리나라 무속에서 중요한 것들이 근래에 와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중 한국무속학회, 김덕목, 권선경 등의 연구들은 구비문학보다 민속학에 더 가깝다 할 것이다.

한편 이경엽은 ‘장흥신청 조사연구’란 보고서에서 장흥신청은 물론 나주신청, 진도신청, 여수신청에 대한 조사 내용도 보고했다. 1930년대 赤松智城, 秋葉隆, 1970년대의 최길성의 조사들을 이은 보고였다. 신청은 무부·

7) 한장군 남매가 각기 야생화들로 만든 3m정도의 큰 화관을 머리 위에 들고 춤을 춘 것을 재현하는 것이다.

악공·광대였던 경기이남의 무부들이 공식적으로 모여 활동했던 곳으로 전통 사회 때만 하더라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각 道 各 郡에 있었다. 이러한 신청은 경기이남의 곳을 비롯한 이들 경기이남의 무부들의 여러 민속예능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곳들이었다.

2.7. 속담과 수수께끼

속담과 수수께끼는 간단한 말들로 되어 있기에 사실 구비문학으로 다루면서도 개론서와 같은 데서나 마지막에 간략하게 덧붙여지는 식으로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김경섭의 말대로 ‘이것은 문학적 양식의 하나일 수도 있고, 언어 민속으로도 다루질 수도 있기에’ 구비문학 연구자와 민속학자가 공유하고 있어 연구를 서로 미룰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어쨌든 이번에는 최래옥이 『한국구비문학론』을 내며 속신어는 “생쌀을 먹으면 어머니가 죽는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와 같이 크게 조건절과 결과절로 이뤄지고, 그 유형도 금기어와 길조어가 있다는 등의 논의를 했다.

그리고 속신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서강대 석사논문, 1996), 수수께끼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서강대 박사논문, 2003) 등으로 이 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김경섭에 의한 『수수께끼와 속신의 구술 담화 연구』가 이뤄졌다. 이 책에서 김경섭은 수수께끼의 제의기원설을 주장한 호이징하의 이론도 소개하며, 수수께끼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어떤 근원적 형식과 관계된다는 수수께끼의 인문학적 의의도 논했고, 속신에 대해서도 관계화된 ‘집단적 상징화’, 전통화된 ‘집단적 자의화’ 등으로 논하며 그 민족적, 전통적 의의를 논했다.

수수께끼는 특정 메시지의 전달을 방해하는 소통 방식으로 인해 ‘전어의 조작’, ‘맥락의 조작’, ‘약호의 조작’ 등이 이뤄지며, 그 연행 방식도 ‘일방형’, ‘顛倒形’, ‘쌍방형’ 등이 있다 했다. 속신은 예조 속신, 제어 속신으로 나누고 예조 속신에 ‘길조 : 흉조’, 제어 속신에는 ‘권장 : 금기’가 있다고 했다. 또 예조는 신념에, 제어는 규범에 연결되어 이러한 ‘신념 : 규범’은

인식론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논의에는 스승인 송효섭에게서 배운 구조주의와 기호학, 연행론 등의 이론이 바탕이 되었다 했다.

김경섭의 이러한 연구는 구비문학의 한 작은 분야였던 수수께끼와 속담을 현재에도 의미 있는 인문학의 한 영역으로 발전시킨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2.8. 현대의 구비문학

현대의 구비문학은 현대에 와서도 구비문학이 이뤄진 것, 현대의 대중예술인 영화나 드라마에 구비문학이 활용된 것,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성립되어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사업을 시작한 이래 구비문학이 일반 문화예술 콘텐츠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 등 세 가지로 일단 나누어 볼 수 있다.

현대에 와서도 구비문학이 이뤄진 것에 대한 것은 우선 현대 도시에서의 설화 자료집인 신동훈 등이 편찬한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1~10』을 들 수 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2년간 전국의 주요 대도시 공원에서 이뤄진 98개의 이야기관에서 수집한 이야기들을 담은 것이다.⁸⁾ 「이야기꾼의 작가적 특성에 대한 연구 -담골공원 이야기꾼의 사례를 중심으로」(1998)와 같은 논문을 쓰며 대도시 공원에서 전문적 이야기꾼들에 관심을 가진 신동훈이 ‘시골보다 오히려 대도시 공원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수집할 수 있다’고 여겨 착수한 작업이다. 조사 기자재의 발달로 이야기관 현장을 영상 자료로도 남겼다.

이외 연구로 이유진의 「창작 판소리 <예수전> 연구」를 들 수 있다. 판소리 명창이면서 동시에 기독교인이었던 박동진(1916~2003)이 1969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40여 년 동안 교회들을 중심으로 불렀던 창작 판소리 <예수전>의 창작 과정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판소리사적 의의를 논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전>은 그 흥행이 순수 공연물로까지는 성공하지 못하여 하나의 예술로서의 판소리 작품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판소리 연구사적 면에서 이미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상현은

8) 여기에 김종근, 김경섭, 심우장 등도 참가했다.

80년대 문화운동권의 민요에 대한 이해와 활용 -‘민요연구회’ 활동을 중심으로』에서 1984년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이뤄진 민주화 운동권에서의 민중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민요연구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그 민요사적 의의도 논했다. 연구자가 실제 이 ‘민요연구회’ 출신의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 회의 활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면이 많은데, 이 ‘민요연구회’ 활동은 애초에 1980년대의 정치적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민요사적 맥락보다 당시 그러한 정치사적 맥락을 더 중시하는 것이 보다 정당한 접근법이 되리라 여겨진다.

구비문학과 현대의 대중예술의 관계에 대해서는 심우장의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 찾기 -<슈렉>과 <바리공주>의 비교를 중심으로」가 있었다. 영화 <슈렉>에는 늪지의 괴물인 슈렉의 그로테스크한 미학이 나오는데, 이러한 미학은 이미 서사무가 <바리공주>에서 바리공주와 결혼하는 거인인 ‘무장승’에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의 설화들 중 비록 부분적 형태로 있는 요소들이라도 오늘날 흥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찾아서 확대한 뒤 이를 활용해야 된다는 논의를 했다. 이명진은 판소리 콘텐츠의 애니메이션화 연구』에서 그동안 만화 영화의 소재로 활용된 판소리 작품들을 갖추어 소개했다.

이러한 구비문학과 현대의 대중예술의 관련에 대한 논의들은 기존의 구비문학과 현대의 대중예술의 관련이란 논의를 넘어 ‘구비문학 - 문자문학 - 현대의 매스미디어 문학’이란 관점에서 이제는 ‘현대의 매스미디어 문학’이란 새로운 문학을 독립되게 설정하여 연구할 때 비로소 그 학문적 자리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한다.

2001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성립된 이래 시작된 전통문화원형 콘텐츠 작업 및 일반 문화예술 콘텐츠 작업과 관계해서는 설화 부분에서는 이미 스토리텔링이라는 보다 발전된 형태로 그 작업들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들에서도 역시 각시 방식들로 그러한 콘텐츠 작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다. 근래에는 기존의 구비문학 연구자들 외에도 새로운 연구자들과 콘텐츠 실무 작업을 하던 사람들까지 모여 2008년에 한국문화예술콘텐츠학회란 단체를 만들어 이번에 『문화예술콘텐츠』 제3·4집을 내었다. 그런데

이들에 실린 글들까지 소개하기에는 벽차 여기서는 이 정도의 소개만 하도록 한다.

3. 남는말

크든 작든, 여러 연구 성과들에 있는 연구자들의 노력들을 생각하며 가능한 대로 2009년 구비문학의 모든 연구 성과들을 검토하고 읽고자 했다. 그러나 필자의 역량과 주어진 보고 기간으로 그와 같은 작업들은 실제로 이뤄지지 못했다. 오히려 그와 같은 작업들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면이 더 많은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글이 ‘연구사’ 정리가 아니라 ‘연구 동향’을 보고하는 것인 것은 참으로 다행이다. 연구사를 정리한다면 모든 연구 성과들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하지만, 연구 동향 보고이니 다 읽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일반 연구자들은, 본 보고서를 쓰며 제대로 읽지 않은 연구 성과들이 많으니 다른 연구자들은 여기서의 보고 내용보다 부록에 있는 목록을 먼저 보고 필요한 연구 성과들을 찾기 바란다. 여기서의 목록은 ‘국회 도서관’의 목록이 중심이 되었다.

참고문헌

1. 구비문학 일반론

(단행본)

- 임재해 외,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민속원, 2009.
최태욱, 『한국구비문학론』, 제이앤씨, 2009.
단국대학교 부설 동양학연구소 엮음, 『구비문학 관련 자료집 : 신문편』, 민속원, 2009.

(소논문)

- 김태환, 「『한국 구비문학 대계』음성자료 전사 반영의 실태와 보유편 집성의 필요」,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1호 통권114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박기용, 「통영시 구비문학의 특징과 의미」, 『진주문화』, 제19호, 2009.

(학위논문)

- 강만복, 「비문학의 구술성을 활용한 매체언어 교육방안」, 부경대 석사논문,
송준, 「한국 무형문화재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고려대 박사논문, 2009.

2. 설화

(단행본)

- 강재철, 『한국 설화문학의 탐구 -한국 설화의 전통적 접근』, 단국대출판부, 2009.
김경식, 『조선구전설화집』, 사회과학출판사, 2009.
김영수, 『삼국유사와 문화코드』, 일지사, 2009.
김현신, 『설화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고사, 2009.
박명숙, 『한중 운명설화 연구』, 민속원, 2009.
성범중, 『울산지방의 문학전통과 작품세계』, 월인, 2009.
송효섭, 『해체의 설화학』, 서강대 출판부, 2009.
신동훈, 『서사문학과 현실 그리고 꿈』, 소명출판, 2009.
신동훈, 『이야기와 문학적 삶』, 월인, 2009.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집성 1~10』, 민속원, 2009.

- 혜심 편, 각운 저, 정천구·송인성·김태완 역주, 『선문염송염송설화 1~10』, 부산대 산학협력단: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9.
- 신동훈 외, 『도시전승 설화자료 연구 -도심공원의 이야기 전승양상 및 자료목록』, 민속원, 2009.
- 심의린 저, 신원기 譯解, 『조선동화대집 -우리말 최초의 동화집·설화집』, 보고서, 2009.
- 이종란, 『나무꾼과 선녀』, 철학과현실사, 2009.
- 전신재, 『강원의 전설 2』, 집문당, 2009.
- 정소영, 『한국 전래동화 탐색과 교육적 의미』, 역락, 2009.
- 정운채, 『문학치료 서사사전 1-3 :설화편』, 문학과치료, 2009.
- 정재민, 『한국 운명설화 연구』, 제이앤씨, 2009.
- 정호원 편, 『오작교 유래 -반도 설화집』, 한국학술정보, 2009.
- 조희웅, 『이야기문학 징검돌』, 글누림출판사, 2009.
- 한일섭, 『서사의 이론 -이야기와 서술』, 한국문화사, 2009.
-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 손진태 저, 최인학 역편, 『조선설화집』, 민속원, 2009.

(소논문)

- 강성열, 「창세기의 홍수 기사와 한국의 홍수 설화 비교」, 『신학이해』 제37집, 호남신학대출판국, 2009.
- 강은혜, 「동아시아 아기장수 설화의 전승과 그 사회 교육적 의미 -한국·일본·베트남 설화를 중심으로」, 『동북아문화연구』 제20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 강재철, 「설화문학에 나타난 권선징악의 지속과 변용의 의의와 전망 :민담 <도깨비방망이 설화>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45집, 동양학연구소, 2009.
- 강현모, 「영귀대사 설화의 연구: 설화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서사문법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31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 고혜경, 「상징해석을 통한 창세여신 설문대할망 이미지 복원」,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김경섭·김경경, 「시집살이 이야기 조사연구 중간보고」,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 김남형, 「만파식적 설화의 역사적 의미」, 『한국학논집』 제38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09.
- 김동환, 「서사 모티프의 문화 간 이야기화 양상과 한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35집, 국어교육학회, 2009.

- 김미숙, 「입사식 원형으로서의 버림/버려짐 모티프와 상자 모티프 -<퀘네깃당본 풀이>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제147집, 연세대 출판부, 2009.
- 김승호, 「해양공간의 설화적 수용과 의미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37집,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9.
- 조완호, 「<공쥐괘쥐전>에 내재한 진실」, 『문학마을』 제10권 2호 통권38호, 문학마을, 2009.
- 김영동, 「최상의 감동에 대한 설화문학의 표현적 고찰 :『삼국유사』 소재 설화를 중심으로」, 『신라문화』 제34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 김영수, 「景文大王 <驢耳說話>의 再解釋」, 『동아시아고대학』 제20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 김예선, 「여성의 살아온 이야기에 담긴 파격의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김유미, 「『석보상절』의 기원정사 인연담에 관한 고찰」, 『인도철학』 제26집, 인도철학회, 2009.
- 김일산·정순희, 「‘취의 혼인’ 설화 전승과 변이」, 『동방학술논총』 제13기 2009년 제3기, 한국학술정보, 2009.
- 김정란, 「도깨비 설화와 연금술」, 『비교문학』 제48집, 한국비교문학회, 2009.
- 김종근, 「선도성모 설화의 변개 양상과 그 의미」, 『온지논총』 제23집, 온지학회, 2009.
- 김진형, 「현장론적 화소체계에 따른 ‘용 싸움에 끼어든 度祖’ 유형 설화의 구조분석」, 『비교민속학』 제38집, 비교민속학회, 2009.
- 김현선·변남섭,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 원형 -이야기와 본풀이를 예증삼아」,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김혜정, 「<장자못 전설>의 전파력 연구 -<돌부처 눈 붉어지면 침몰하는 마을> 설화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나경수, 「서동설화와 백제 무왕의 미륵사」, 『한국사학보』 제36호, 고려사학회, 2009.
-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릭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노영근, 「구비서사에 나타난 ‘말’의 원형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노영근, 「<왕능전>의 설화 수용양상 연구」, 『한국고전연구』 통권19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 이철우, 「단군신화에서의 구조 및 특성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제2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 금상현, 「선운사 창건설화의 고찰」, 『신라문화』 제33집,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9.
- 문성대, 「조광조 관련 문헌설화의 개변 양상과 그 의미」, 『우리어문연구』 제33집, 우리어문학회, 2009.
- 박미경, 「일본인의 조선민담 연구고찰 :일제 강점기 일본어로 쓰여진 설화집에 나타난 형제상을 중심으로」, 『日本學研究』 제28집, 단국대 일본연구소, 2009.
- 박대복·이영월, 「『혼불』에 受容된 柳子光 說話와 民衆意識」, 『동아시아고대학』 제20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 박상란, 「구전설화의 막내캐릭터와 그 문화적 의의」, 『한국문학연구』 제37집,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2009.
- 박인철, 「설화 텍스트에서 정념의 역할과 정념의 구조」, 『인문과학』 제90집,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2009.
- 박인희, 「『三國遺事』 道伴說話의 확장과 변모」, 『어문연구』 37권 2호 통권14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배윤경·박보경·박아름·이순민·조미숙, 「구전설화에 나타난 음식의 상징성」,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제24권 제6호,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09.
- 백민정, 「민담의 서사 구조적 원형과 그 의의」,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서철원, 「眞表 傳記의 설화적 화소와 聖者 형상」, 『시민인문학』 제16호, 경기대 인문대학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신동훈,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녀관계의 원형 -‘집 나가는 딸’ 유형의 설화를 중심으로」,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신동훈, 「여성 생애담의 성격과 조사연구의 방향 -시집살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제47집,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2009.
- 신선희, 「구비설화 다시쓰기와 새로운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심우장, 「거짓말 딜레마와 이야기의 역설 -설화 <거짓말 세 마디로 장가든 사람>의 이해」,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신종원, 「『삼국유사』 ‘육면비염불서승’조에 보이는 역사와 설화」, 『전통문화논총』 7호, 한국전통문화학교, 2009.
- 이수자, 「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이윤선, 『서남해연안 최치원설화의 수용관념과 문화코드』, 『남도민속연구』 제18집, 남도민속학회, 2009.
- 이인경, 「<왕이 된 새새이> 설화의 해석에 투영된 자기서사 -집단상담을 통한 자기성찰의 효용에 주목하여」, 『어문논총』 제5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 이정재,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 -인신공희 설화 중심」,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이정재, 「희생제의 설화의 원형성 연구 :인신공희 설화 중심」,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의 동북아 지역 전승 양상과 그 특징」, 『동아시아고대학』 제20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 이창식, 「강릉단오제 관련 설화 연구의 동향과 전망」,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 2009.
- 임철호, 「선족설화의 형성과 장르적 성격」, 『우리말글』 제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 전관수, 「牽牛織女說話에 대한 古代天文學的 試論」, 『정신문화연구』 제32권 제3호 통권116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 정경훈, 「<囍對說話>의 사실성과 의미」, 『동방한문학』 제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 정진희, 「제주도와 오키나와 미야코지마 신화에 보이는 입도녀·토착남 화소의 비교 고찰」, 『구비문학연구』 제28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불교 설화 -주제별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제45집, 우리말글학회, 2009.
- 조정현, 「마을 성격에 따른 인물전설의 변이와 지역담론의 창출 -안동지역 서애 류성룡 관련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조희정, 「고전시가 쓰기 교육 연구 -배경 설화를 지닌 失傳 고전시가의 再構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천혜숙, 「부자 이야기의 주제와 민중적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최웅, 「강감찬 설화의 의미 분석」, 『인문과학연구』 제23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최원오, 「다문화사회와 구비문학 교육 -구전신화에 내재된 초국가적 원리를 중심으로」, 『어문학』 제106집, 한국어문학회, 2009.
- 최원오, 「'원형 개념'으로서의 변신에 내재되어 있는 세 가지 특성과 변신 미학」,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최진형, 「구전설화에 나타난 ‘과격’ :가족관계에서 ‘갈등’의 발생 상황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학위논문)

- 강민경, 「‘실수설화’의 유형분류와 전승의식」, 경성대 석사논문, 2009.
- 김경희, 「『삼국유사』 소재 고승설화 연구」, 조선대 석사논문, 2009.
- 김선영, 「〈황새결승〉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9.
- 김옥숙, 「한국 구비지혜담 연구」, 울산대 박사논문, 2009.
- 김정애, 「30~40대 미혼 여성의 남녀관계에 대한 자기서사 연구 -‘연애 못하는 여성’의 특성을 중심으로」, 건국대 박사논문, 2009.
- 김정미, 「제주 설화의 생태학적 인식」, 제주대 석사논문, 2009.
- 김현숙, 「도선설화 연구」, 조선대 박사논문, 2009.
- 김혜미, 「한부모의 이성 관계를 거부하는 아동에 대한 문학치료 설계 -설화를 통한 자기서사의 진단과 조정」, 건국대 석사논문, 2009.
- 김혜진,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능력 향상을 위한 설화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9.
- 박성애, 「한국 일월설화의 연구 -연오랑과 세오녀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중심으로」, 선문대 석사논문, 2009.
- 배세은, 「한·중 금기설화 비교 연구 -민간신앙과 성립종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09.
- 신원기, 「〈견우직녀 설화〉의 문학교육적 가치 연구」, 부산대 박사논문, 2009.
- 양주연, 「〈사찰창건설화〉 연구」, 경성대 석사논문, 2009.
- 오정아, 「〈조마구 설화〉 연구」, 경기대 석사논문, 2009.
- 이규훈, 「조선 후기 여성 주도 고난 극복 고소설 연구」, 한국교원대 박사논문, 2009.
- 이한나, 「〈용설화〉의 유형과 전승의식」, 경성대 석사논문, 2009.
- 이희영, 「〈원님설화〉의 유형과 전승의식」, 경성대 석사논문, 2009.
- 전영립, 「바보사위 설화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9.
- 정신숙, 「전남지역 개가열녀설화 연구」, 전남대 석사논문, 2009.
- 정혜옥, 「한국 고소설에 나타난 용설화의 변형 양상 연구」, 전북대 석사논문, 2009.
- 조성숙, 「한국 전래동화 연구 -설화의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경남대 박사논문, 2009.
- 조현규, 「한승원 소설의 설화 수용 양상 연구」, 목포대 석사논문, 2009.
- 최무환, 「포항지역 설화 연구」, 계명대 석사논문, 2009.

최선일, 「설화를 이용한 비관적 역사 이해 함양」, 서울교육대 석사논문, 2009.

3. 민요

(단행본)

김미숙, 『(악보와 뜻풀이가 있는) 해설 남도민요』, 민속원, 2009.

배경숙, 『이재옥과 ‘영남전래민요집’ 연구』, 국학자료원, 2009.

정동화 편저, 『경기민요』 일조각, 2009.

최은숙, 『민요 담론과 노래 문화』, 보고사, 2009.

(소논문)

강등학, 「한국의 민요연구 역사와 문제의식의 추이」, 『한국민요학』 제27집, 한국민요학회, 2009.

강혜인, 「전래동요의 장단 분석 연구」, 『한국민요학』 제25집, 한국민요학회, 2009.

권순희, 「‘玉屑華談’의 疏通 樣相과 通俗性」, 『어문연구』 37권 2호 통권14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권혁준, 「인제 <뗏목아리랑>에 투영된 때문의 삶」,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김영운, 「경기 통속민요의 전승양상과 음악적 특징」, 『우리춤 연구』 제10집, 우리춤연구소, 2009.

김영철, 「開化期の 民謠의 社會詩學的 考察」, 『어문연구』, 37권 1호 통권14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김정희, 「민요의 시김새 유형에 관한 일고찰」, 『한국음악연구』 제46집, 한국국악학회, 2009.

김혜정, 「경기소리의 전승 맥락과 보존·계승 방안」, 『한국민요학』 제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류경자, 「남해군의 장례식요 연구」, 『한국민요학』 제25집, 한국민요학회, 2009.

박민일, 「아리랑의 남상, 정선아리랑」,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박상영, 「서사민요 <만말애기노래>의 구조적 특징과 그 미학」, 『한국시가연구』 제27집, 한국시가학회, 2009.

박애경, 「환락과 환멸 -1930년대 민요와 재즈송에 나타난 도시의 ‘낮선’ 형상」, 한국구비문학회, 2009.

- 박혜원, 전래동요의 말붙임새를 이용한 자진모리형 리듬창작 학습방안, 『한국민요학』 제25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서승아, 「한국 민요 텍스트의 결속성 연구 -‘타박네야’와 ‘노랫가락 차차차’를 대상으로」, 『텍스트언어학』 제26집, 한국텍스트언어학회, 2009.
- 서영숙, 「부모-자식 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성과 향유층의 의식」,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 서영숙, 「『한국구비문학대계』, 미전사 민요의 특징과 가치 -1집 2책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36권 제1호 통권76호,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 서영숙, 「남매 관계 서사민요의 구조적 특징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5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서한범, 「서도소리의 특징적 시김새에 관한 연구 -민요와 좌창을 중심으로」, 『한국음악연구』 제46집, 한국국악학회, 2009.
- 성기련,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민요 관련 지도내용 고찰」, 『한국민요학』 제25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손인애, 「남도민요(잡가) <홍타령>에 대한 史的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46집, 한국국악학회, 2009.
- 손인애, 「강릉 학산리 민요에 수용된 사당패소리 연구 -지역화된 양상을 중심으로」, 강원민속학, 강원도민속학회, 2009.
- 손인애, 「경기민요 <천안삼거리(홍타령)>에 대한 史的 고찰」, 『한국민요학』 제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안상복, 「라리련(라리련)과 아리랑 -그 현상과 의미」, 『中國學報』 제59집, 韓國中國學會, 2009.
- 유명희, 「평창 지역 민요 자료 분석과 현황」,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 유종국, 「<과랑새謠> 研究」, 『지역민속학』 제1호, 지역민속학회, 2009.
- 이보형, 「아리랑소리의 생성문화 유형과 변동」, 『한국민요학』 제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이복규, 「조선총독부 기관지 『조선』지의 김지연 채록 민요들」, 『국제어문』 제45집, 국제어문학회, 2009.
- 이소영, 「해방 후 북한의 신민요」, 『한국음악연구』 제45집, 한국국악학회, 2009.
- 이소영, 「식민지 근대의 잡가와 민요」, 『한국음악연구』 제46집, 한국국악학회, 2009.
- 이용식, 「강원도 <아라리>의 음악적 특징과 원형적 특질」, 『한국민요학』 제25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이윤선, 「민요의 혼자 부르기와 여럿이 부르기에 대하여 -진도지역 유희요를 사례 삼아」, 『한국민요학』 제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이윤선, 「연령층별 민요 부르기의 일생 의례적 성격 -민요의 교육과 활용을 위한 생태민요학 시론」,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
- 이윤선, 「〈수심가〉사설의 매체별 변이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이창식, 「태백지역 아라레이의 전승과 기능보유자」,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 이학주, 「화천민요의 양상과 의식요의 성격 고찰」,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 이한길, 「양양군의 <소모는 소리> 고찰」,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 이해경, 「상호문화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민요」, 『한국민요학』 제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장정룡, 「속초도문메나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 정한기, 「민요 <산유화>의 통시적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 정한기, 「조선후기 <모내기노래> 관련 한시에 나타난 작자의식」, 『한국민요학』 제26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조영배, 「향가의 구비문학성에 대한 국어사적 고찰」, 『배달말』, 통권 제45호, 배달말학회, 2009.
- 최은숙, 「한국 근대 민요에 관한 연구 경향과 쟁점」, 『한국민요학』 제27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최자은, 「다리세기노래의 양상과 의미」, 『한국민요학』 제25집, 한국민요학회, 2009.
- 최재남, 「조선후기 민요 연행의 실상과 서정시가의 향방」, 『한국시가연구』 제26집, 한국시가학회, 2009.
- 최현, 「韓國民謠 音樂的特徵의 哲學的意味 研究」, 『한국민요학』 제27집, 한국민요학회, 2009.
- 허경진·박은애, 「『한어유취(韓語類聚)』에 채록된 19세기 말 민요에 대하여」, 『한국민요학』 제27집, 한국민요학회, 2009.
- 홍순일, 「민요공동체의 문화권역적 전개와 지역문화적 특성 -산다이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9집, 남도민속학회, 2009.

(학위논문)

- 강향숙, 「경상북도 민요에 나타난 논매기소리 연구 -MBC 한국민요대전을 중심으로」, 중앙대 국악교육대학 석사논문, 2009.
- 김미영, 「이화자의 신민요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9.
- 김은정, 경남 김해지역 <모심기노래>와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석사논문, 2009.
- 도은미, 경상도민요의 특징을 활용한 창작지도 방안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2009.
- 조경순, 「시집살이 민요 연구 -서사민요를 중심으로」, 창원대 석사논문, 2009.

4. 판소리

(단행본)

- 김동현, 『판소리 길라잡이』, 민속원, 2009.
- 김혜정, 『판소리 음악론』, 민속원, 2009.
- 백대웅, 『선율이란 무엇인가』, 문예원, 2009.
- 신은주, 『판소리 중고계 김정순家의 소리』, 민속원, 2009.
- 유영대 엮음, 『동편제 명창 박봉술의 예술세계』, 민속원, 2009.
- 이윤석, 『남원고사 원전 비평』, 보고사, 2009.
- 정출현, 『조선 최고의 예술 -판소리』, 미래엔컬처그룹:아이세움, 2009.

(소논문)

- 구사회·이수진·양지옥, 「새로 발굴한 가사체 <춘향전>에 대하여」, 『동양고전연구』 제34집, 동양고전학회, 2009.
- 권순희, 「신재효 단가의 재조명」,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김기형, 「송만갑 명창의 출생지 고찰 논의와 그 성격」,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김동건, 「판소리 문학의 저항」, 『국제어문』 제46집, 국제어문학회, 2009.
- 김석배, 「고창판소리박물관 소장 <홍보가>에 대하여」, 『선주논총』 제12집, 금오공과대 선주문화연구소, 2009.
- 김석배, 「<심청가>의 지평전환 양상」,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김석배, 「일제강점기 판소리 명창의 생몰연대 고찰」, 『국어교육연구』 제45집, 국어교육학회, 2009.

- 김석배, 『판소리의 보존과 전승 방안』, 『문학과 언어』 제31집, 문학과언어학회, 2009.
- 김정태, 「판소리 광대의 호흡법 연구」,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김재웅, 「호남 지역에 유통된 필사본 고소설의 종류와 향유층에 대한 연구」, 『고소설연구』 제28집, 고소설학회, 2009.
- 김현주, 「판소리에서 시간운동과 역사의식의 관계」,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김현주, 「임방울의 ‘쑥대머리’에 대한 담화론적 해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권 4호 제45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9.
- 류경호, 「창극공연의 연출 특성과 발전적 대안 -전통창극 <춘향전>과 <흥부전>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배연형, 「판소리 노정기와 燕行使 燕行日記 -19세기 판소리 公演市場의 一面」,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배인교, 「1950~60년대 북한 전통 음악인들의 활동 양상 검토 -창극 관련 음악인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서정민, 「홍보가 중 제비가에 나타난 설령제의 구현 양상」,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정하영, 「<春香傳> 生成과 傳承에 있어서 漢文本의 役割」, 『어문연구』, 37권 4호 통권14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 서종문, 「소리판과 판소리 사설」,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성기련, 「‘소리판’을 주제로 한 통합적 판소리 교수·학습 방법 연구」,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손태도, 「조선 후기 서울에서의 광대 문화 변동과 판소리」, 『고전문학연구』 제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 송미경, 「<신오위장본집> 소재 <토끼타령>에 드러난 변모양상과 의의」,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송미경, 「여규형본(呂圭亨本) <춘향전(春香傳)> 각본의 형성과 독서물로의 수용 전환」,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신은주, 「중고제 심청가 <범피중류> 연구」,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신현욱, 「창극의 북한식 수용양상으로 본 민족가극 <춘향전>」, 『문화예술콘텐츠』 제4호,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09.
- 엄국천, 「북한의 신재효 연구 현황」,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유제호, 「<적벽가>의 필진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1 -필진성 결여 양상 분석」,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이진오, 「정노식의 행적과 『조선창극사』의 저술 경위 검토」, 『관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이청, 「이문구 소설의 전통 양식 수용 양상」, 『관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정병현, 「관소리의 20세기 변모 양상과 지향」, 『국어국문학』 제152호, 국어국문학회, 2009.
- 정출현, 19세기 후반, <적벽가>의 전환 양상과 시대정신 -將帥의 목소리와 兵卒의 목소리가 엮이는 전쟁서사」, 『관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정충권, 「獄中 春香의 內面」, 『관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정충권, 「관소리 작품에 나타난 誘惑」, 『개신어문연구』 제29집, 개신어문학회, 2009.
- 최광석, 「신재효 판소리 사설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 지향 -<적벽가>와 <토벌가>를 중심으로」, 『관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최홍원, 「판소리 흥미 연구 서설 -확인과 일탈의 길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제129호, 한국어교육학회, 2009.

(학위논문)

- 김경아, 「판소리 춘향가 중 <십장가> 비교연구 -성우향, 오정숙의 창을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논문, 2009.
- 김민정, 「<홍부전> 교육 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9.
- 문승미, 「판소리 사설에 나타난 골계미 연구」, 군산대 석사논문, 2009.
- 야마우치 후미타카, 「일제시기 한국 녹음문화의 역사민족지 -제국질서와 미시정치」,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9.
- 백은철, 「판소리 광대의 학습·훈련에 관한 연구 : 전주지역 여성 소리꾼을 중심으로」, 전북대 석사논문, 2009.
- 박윤희, 「판소리에 나타난 엇증모리 장단에 관한 연구」, 단국대 석사논문, 2009.
- 박정희, 「판소리 <십청가> 동초제·강산제 비교 연구 : 이일주·성우향 소리를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논문, 2009.
- 서유석, 「판소리 몸 담론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2009.
- 서혜영, 「<변강쇠가>연구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논문, 2009.
- 송지영, 「판소리 십청가의 선율 비교연구 -정권진·장월중선의 ‘곽씨 유언대목’과 ‘무덤앞에서’를 중심으로」, 원광대 석사논문, 2009.
- 양명희, 「판소리 <춘향가> 중 ‘옥중탄식’ 대목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9.
- 양은희, 「동편제 흥보가와 숙영낭자전, 보림의 가창 연구」, 동국대 문화예술대 석사논문, 2009.

유희경, 「판소리 너름새의 구성요소와 표현기법 -동초제 <춘향가>를 중심으로」, 중앙대 석사논문, 2009.

이강은, 「창극을 통한 음악적 통합학습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9.

제정화, 「벽소 이영민의 「순천가」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09.

진영, 「판소리계 소설과 화본소설의 비교연구」 경희대, 2009.

표명준, 「판소리 교육의 문제점과 발전적 교수-학습 방안」, 영남대 석사논문, 2009.

하미순, 「판소리 발림에 관한 연구 : 춘향가 중 <사랑가>와 <십장가>대목을 중심으로」, 전남대 석사논문, 2009.

홍진주, 「<배비장전>의 형성과 휘절 양상 고찰」, 숙명여대 석사논문, 2009.

황정원, 「판소리 홍보가의 엮모리장단 고찰 -사설불임을 중심으로」, 동국대 문화예술대 석사논문, 2009.

5. 민속극

(소논문)

김경나, 「한국 전통 가면극에 나타난 불교」, 『불교평론』 제11권 제4호 통권 제41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9.

박진태, 「한국 민속탈의 조형적 특징과 상징적 의미」, 『지역민속학』 창간호, 지역민속학회, 2009.

박진태, 「한국 무연탈놀이의 연극미학적 특성」, 『공연문화연구』 제19집, 한국공연문화연구회, 2009.

서연호, 「식민지시대 오청의 민속조사 및 민속선양 활동」, 『어문논집』 제60집, 2009.

장정룡, 「강릉단오제 관노가면극 연구사적 검토」, 『강원민속학』 제23집, 강원도민속학회, 2009.

조만호, 「한국가면극의 창조적 복원 연구」, 『반교어문연구』 제26집, 반교어문학회, 2009.

조용숙, 「한국 가면극과 중국 골계희의 희극성 비교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2009.

최성진, 「무속탈의 제작법과 문화 체험에의 활용 방안 -동해안별신굿의 탈놀음굿과 범탈굿의 탈을 중심으로」, 『지역민속학』 창간호, 지역민속학회, 2009.

허용호, 「人形演行史 기술의 새로운 모색」, 『공연문화연구』 제19집, 한국공연문화연구회, 2009.

황경숙, 「부산지역 잡색놀이의 유형과 연희적 특성 -‘가재도구 되팔기’ 모티브를 중심으로」, 『港都釜山』, 통권 제25호,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9.

(학위논문)

김경나, 『몽골 후례 참의 연희양상과 한국 가면극의 관련성』, 고려대 석사논문, 2009.

김형준, 「강릉관노가면극의 연행과 전승집단의 연구」, 강릉대 석사논문, 2009.

윤아영, 「고려말·조선초 宮庭儺禮의 변천양상과 공연사적 의의」, 서울대 박사논문, 2009.

최아영, 「한국가면극의 해외공연 활성화에 관한 연구 -봉산탈춤을 중심으로」, 한양대 국제관광대 석사논문, 2009.

하을란, 「한국 동물가장가면희의 역사와 연희양상」, 고려대 박사논문, 2009.

6. 무가

(단행본)

구중희, 『경책 문화와 역사』, 민속원, 2009.

김현선, 『인천 영종도 속개 재수굿 무가집』, 보고서, 2009.

나경수 외, 『호남의 광머리씻김굿』, 민속원, 2009.

박경신, 『한국의 오구굿 무가 1~10권』, 국학자료원, 2009.

한국무속학회 엮음, 『호남굿의 이해』, 민속원, 2009.

(소논문)

김화경, 「바리공주 신화의 연구」, 『한국사상과 문화』 제46집, 한국사상문화연구원, 2009.

강진욱, 「신성과의 소통방식'을 통해 본 무속의례와 신화의 공간성 연구」,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

권선경, 「서울 지역 아기사당 성격과 기능」, 『한국민속학』 제49집, 한국민속학회, 2009.

권선경, 「서울굿에 나타난 군웅의 의미」,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김덕묵, 「무속의례의 물질 토대와 재화의 분배」, 『비교민속학』 제38집, 비교민속학회, 2009.

김명자, 「가정신앙관련 종교체험 사례 일고」,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 김재용, '무속 농경신화로서의 <세경본풀이>',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3권 4호 제45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9.
- 김정호, '무속신화의 여성 의식 연구 -문헌본풀이의 여신을 중심으로', 『경상어문』 제15집, 경상어문학회, 2009.
- 김태우, '조선 후기 서빙고 지역 부군당 주재 집단의 성격과 변화',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 김현선, '경기도 개성 덕물산 도당굿 연구 -마을사람·무당·궁중패·사당패가 만든 신명의 도가니를 사례로',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 김현선·시지은, '무속의 일생의례와 세계관',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
- 박미경, '해안 세습무의 청보무가연행에서 드러나는 음악적 특징과 그 의미 분석',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 박종덕, '백석 시에 나타난 음식과 무속의 호명 의미 고찰', 『어문연구』 제61권, 어문연구학회, 2009.
- 박혜정, '충남의 앉은굿 음악의 문화권역 시론 -안택굿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 배인교, '조선 후기 巫夫軍牢 연구',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 신연우, '<초공본풀이>의 입사담적 면모 연구',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 양종승, '금성당 무속 유물의 형태와 상징성', 『생활문화연구』 제24호, 국립민속박물관, 2009.
- 오세정, '무속신화에 나타난 무(巫)·불(佛)의 교류와 변주', 『불교평론』 제11권 제4호 통권 제41호,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09.
- 이경엽, '장흥신청 조사연구',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 이병옥·양길순, '김숙자 생애와 가계전승 춤 연구', 『논문집』 제27집, 용인대, 2009.
- 이영금, '봉장춘 무가',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 이영금·김세인, '위도 띠벉놀이의 연행 구조와 제의적 특징',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 임성범, '충청도의 設經 연구',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 전주희, '제주도 서사무가 <지장본풀이>의 특수성 연구 -서사와 제의적 맥락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편성철, '씻김굿에서 희설의 의미',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 허용호, '마을굿과 무당굿의 연관성에 대하여 -충청도 제천 오티마을 별신제와 충청도 사혼굿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 허용호, 「19세기 무속에 대한 ‘반성적 연’의 성행과 그 민중문화적 의미」, 『한국무속학』 제19집, 한국무속학회, 2009.
- 홍태한, 「한국 무속 별상과 별칭 신령의 성격과 의미」, 『비교민속학』 제39집, 비교민속학회, 2009.
- 홍태한, 「서울굿을 통해 본 서울의 무속문화」, 『고전문학연구』 제 35집, 한국고전문학회, 2009.
- 홍태한, 「무가 연행의 핵심 주체, 돈 -서울굿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학회, 2009.
- 홍태한, 「서울 무속의례 ‘풀이’ 연구 -식상풀이, 중등풀이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제18집, 남도민속학회, 2009.
- 홍태한, 「노들제 바리공주 자료」, 『한국무속학』 제18집, 한국무속학회, 2009.

(학위논문)

- 곽영화, 「한국 무신도의 미의식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2009.
- 권지현, 「고려말 무속배척론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9.
- 김덕목, 「황해도굿의 무속지적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9.
- 백지영, 「한국 소설에 나타난 무속 연구」, 세종대 박사논문, 2009.
- 손노선, 「한국 강신무의 접신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2009.
- 안혜경, 「경기남부지역의 가신신앙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9.
- 이관호, 「내포지역 마을신앙의 전승과 변이」, 연세대 박사논문, 2009.
- 최병길, 「동해안 별신굿 장단 연구」, 동아대 박사논문, 2009.
- 최서로, 「광주지역 무속집단의 사회문화적 네트워크」, 전남대 석사논문, 2009.
- 최진아, 「무속의 물질문화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9.

7. 속담과 수수께끼

(단행본)

- 김경섭, 『수수께끼와 속담의 구술 담화 연구』, 박이정, 2009.

(논문)

- 박해숙, 「속담의 문화적 배경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방안」, 인하대 석사논문, 2009.

8. 현대의 구비문학

(소논문)

- 김영만, 「판소리의 국가 문화브랜드화 전략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제3호,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09.
- 김용범, 「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의 원형 보존과 창조적 계승」, 『문화예술콘텐츠』 제4호,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09.
- 박병호, 「문화콘텐츠 소재로서의 판소리 정책적 지원 방안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제3호,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09.
- 서유경, 「판소리를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이청준의 <남도사람> 연작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신동훈, 「현대의 여가생활과 이야기의 자리 -생활현장 속 이야기문화의 회복을 위하여」, 『실천민속학연구』 제13호, 실천민속학회, 2009.
- 신선희, 「구비설화 다시쓰기와 새로운 상상력」,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심우장, 「구비문학의 현재적 의의 찾기 -<슈렉>과 <바리공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59권, 어문연구학회, 2009.
- 유영대, 「창극의 전통과 새로운 무대 -국립창극단의 창극 <청>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이경수, 「판소리의 현대적 변용 가능성에 대한 試論 -'전통론'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이명진, 「판소리 콘텐츠의 애니메이션화 연구」, 『판소리연구』 제27집, 판소리학회, 2009.
- 임재해, 「삼국유사 설화 자원의 문화 콘텐츠와 길찾기」, 『구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구비문학회, 2009.
- 임재해, 「나그네설화의 민속학적 인식과 관광문화학의 새 지평」, 『실천민속학연구』 제14호, 실천민속학회, 2009.
- 장유정, 「박노홍 대중가요 가사의 양상과 구조 연구」, 『대중음악』, 통권 3호, 한울, 2009.
- 정진희, 「제주도 구비설화 <설문대할망>과 현대 스토리텔링」, 『국문학연구』 제19호, 국문학회, 2009.
- 정화영·김동건, 「판소리 대중화를 위한 PBL기반의 이리닝 구축과 전망」, 『판소리연구』 제28집, 판소리학회, 2009.
- 함복희, 「시집살이 민요 스토리텔링의 치유적 효과 -강원지역 민요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제23집,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학위논문)

김경록,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캐릭터 유형 분석 -캐릭터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유형분석」, 홍익대 석사논문, 2009.

9. 해외의 구비문학

(단행본)

박상규, 『우랄·알타이 關係 民謠·語彙·民俗·宗教 研究』, 역락, 2009.

박상규, 『北方 民謠 選集(滿洲·蒙古 編) -資料 解釋 및 原文』, 역락, 2009.

(소논문)

나승만, 「동아시아 민요학계의 연구 경과와 새로운 동향들」, 『한국민요학』 제27집, 한국민요학회, 2009.

박현국, 「까치의 보은담 고찰 -재미 한인 사회의 구전문학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25집,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2009.

박혜영, 「조선족 '민간가요'의 사회적 생산과 태양촌 개척이주민의 수용 -연변 왕정현 동신향 천교령진 태양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민요학』 제27집, 한국민요학회, 2009.

송강호, 「祭祀全書巫人誦念全錄」, 『圖說 譯註 만주연구』 제9집, 만주학회, 2009.

이광복, 「중국희극과 한국창극 비교 -예술 表演 특징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콘텐츠학회』, 2009.

정재서, 「道敎 說話의 政治的 專有와 民族 正體性 -韓·中·日 3國의 경우」, 『도교문화연구』 제31집, 한국도교문화학회, 2009.

조재현, 「韓國 <불가살이> 說話와 日本 <奈良縣風俗誌料> 昔話 比較 研究」, 『日語日文學』 제42집, 대한어일문학회, 2009.

(학위논문)

전금화, 「한국과 중국 퉁구스-만어족 일월기원신화 비교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9.